

그때 그 노래... 추억이 새록새록

DJ 박태진씨 희귀 LP展

스콜피언스 '버진 킬러'
김트리오 악단 20주년 앨범...
1만여장 중 30여점 엄선
29일까지 갤러리아 0518



투더 로지 앨범 'Same'

지금이야 흡연이 범죄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옛 가수들에게 당연시 되는 행위였다. 포크가수 김두수는 데뷔 앨범(1986) 사진에서 멋들어진 연기가 피어나오는 담배를 쥐고 있다. 장발과 대충 걸친 듯한 자켓에서 포크가수다운 자유로움과 낭만을 느낄 수 있다. '동백아가씨'와 '목포의 눈물' 속 곱게 입은 흰 한복과 붉은 입술이 매력적인 이미지, 이난영은 다른 듯 같은 모습

습이 인상적이다.

이외에도 고가 앨범도 볼 수 있다. '김대환과 김트리오 악단' 데뷔 20주년 기념 앨범은 한장에 300만원을 호가한다. 커버 사진에서 무명시절 조용필이 기타를 든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또 장당 200만원 선에서 거래되는 신중현 데뷔 앨범도 전시됐다.

김추자 앨범 '거짓말이야'는 신중현과 관련 된 일화를 담고 있다. 박정희 정권 시절, 정부는 신중현에게 국가를 찬양하는 곡을 부탁했지만 거절당한다.

이후 '거짓말이야'(작곡)를 포함해 신중현 노래들은 모두 금지곡이 됐다. 특히 '거짓말이야'는 '국민에게 정부에 대한 심어졌으며 김추자 안무가 북한 간첩에게 보내는 신호'라는 웃지 못할 이유로 금지곡이 됐다. 덕분에 희귀 음반이 됐다.

선정적인 앨범도 출품됐다. 스콜피언스 앨범 '버진 킬러'는 매우 도발적이다. 나체의 어린 여자아이를 등장시켰다. 물론 정식 수입은 안된 앨범이다.

박씨는 "전시된 LP판을 보고 꿈과 낭만이 있던 옛 시절 추억을 떠올리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곳이라면 LP전시와 함께 음악을 들려줄 생각이다"고 말했다.

박씨는 "전시된 LP판을 보고 꿈과 낭만이 있던 옛 시절 추억을 떠올리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곳이라면 LP전시와 함께 음악을 들려줄 생각이다"고 말했다.

영업시간 매일 오후 5시18분~새벽 2시. 문의 062-222-518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김추자 앨범



김대환과 김트리오 20주년 기념 앨범

신중현 첫 작곡앨범

핑크 플로이드 데뷔 앨범

시대가 빠르게 변하며 음악을 듣는 풍조도 바뀌었다. 현대인들은 음악을 들을 때 인터넷으로 MP3파일과 일러 내려받아 핸드폰으로 듣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중년세대들은 음악 감상을 생각할 때 LP판을 먼저 기억한다. 그 시대에는 취미로 LP를 수집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현대 CD자켓처럼 옛시절 가수들은 심혈을 기울여 LP 커버를 제작하곤 했다. LP는 담긴 음악뿐 아니라 눈길을 끄는 커버로 인해 보는 즐거움도 있었다.

통신매체가 발달하지 않은 시절 LP커버는 가수들이 이름을 알리기 위한 1차적은 홍보수단이었다. 자신 얼굴을 큼직하게 넣는가 하면 노래·연주하는 모습, 미인, 동물 등을 인쇄해 사람들의 눈길을 끌게 만들었다.

지금은 보기 힘든 LP판을 만날 수 기회가 생겼다. 30년간 음악활동을 하며 LP 1만여장을 모은 DJ 박태진(49)씨가 갤러리아 0518에서 'DJ 박태진의 희귀LP전'을 연다. LP 커버 자체만으로 전시회를 연 경우는 광주·전남에서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희귀하거나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고 예술성이 뛰어난 30개를 엄선해 선보인다.

바를 들어가면 1960년대 영국 포크 락그룹 투더 로지(Tudor Lodge) 커버가 가장 먼저 눈에 띈다. 1971년 발매된 투더 로지 앨범 'Same'은 6개판으로 구성된 LP 앨범은 한장씩 들어 있다는 상식을 깨다. 접어진 커버를 열면 마치 성(城) 모양처럼 펼쳐지는 등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명성이 높다. 사진 대신 세 멤버의 초상화를 넣은 것도 재미있다.

누가 아동학대서 자유로울 수 있나

'아라리연' 3~6일 공동예술극장서 연극 '벽장 속의 아이' 공연

1982년 프랑스 사회를 충격으로 몰고 간 사건이 발생했다. 친연마의 목인 아래 새 아빠가 아이를 벽장 속에 가둔 사건이다. 9개월이 지난 시간 동안 아이는 고통과 절망, 갈등과 허기에 시달리며 서서히 죽어간다. 프랑스 작가 오티리라는 이 사건을 모티프로 소설을 썼다. '벽장 속의 아이'다.

지난해 청단한 공연 창작소 '아라리연'이 '벽장 속의 아이'를 공연한다. 3~6일(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3~7시) 공동예술극장.

다섯살 난 주인공 장은 오줌을 싸다는 이유로 벽장 속에 갇힌다. 새 아빠는 전 남편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엄마는 남편이 자신을 버릴까봐 두려워서 아이를 꺼내주지 않는다. 별 한 줄기 들지 않는 캄캄한 벽장 속에서 아이의 영혼과 육체는 끝없는 나락으로 무너져 내린다.

극단 대표 황민형씨가 연출을 맡았으며 주인공 장 역은 정낙일과 최효주가 나눠맡았고



'벽장속의 아이' 출연 배우들.

손다희, 이승현, 문진희, 최은뜸씨 등이 출연한다.

황민형씨는 "연극은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도 아동학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 모습을

반추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청단한 '아라리연'은 7월 열린 제69회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 오프 무대에서 '곰주'를 공연하기도 했다. 티켓 가격 2만원. 문의 010-8208-0528. /김미은기자 mekim@

'망각-도시생활'... 김영일 개인전

29일까지 전남대치과병원 아트스페이스갤러리

김영일 작가가 29일까지 전남대학교치과병원 아트스페이스갤러리에서 개인전 '망각-도시생활(Forggetting-City Life)'을 연다. 김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망각'을 주제로 한 작품 10여점을 선보인다.

망각시리즈는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지만 관심이 없다면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사물을 소재로 삼았다. 작가는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에서 실제로는 존재하지만 잊혀졌던 공간 감성을 표현한다. 작품 속 배경인 도시 풍경을 자연·본질적인 공간과 대조적으로 바라본다.

작가는 소원도에 전시된 의류들을 그린 작품 'Forgetting-City Life 31'이나 외모주의를 상징하는 마네킹이 등장하는 'Forgetting-City Life 28' 등은 통해 가식적인 도시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다.

김씨는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 아트그룹 소나무, 아트그룹 인포 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수 그룹·초대전에 참여했다. 문의 062-530-553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Forgetting-City Life 31'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

공지영, 조정래, 유시민, 정호승, 최재천, 김병종 등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 23인이 말하는
책이 삶을 빛나게 하는 순간들!



/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이 털어놓은 책과의 인연! 자신만의 색깔로 책을 짓는 작가들과 문화예술가 23인의 내밀한 고백을 한데 모았다. 책은 작가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고, 또 그로 인해 그들은 어떤 작품을 쓰게 되었을까.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을 한 명의 독자로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작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운명 같은 순간을 엿보게 될 것이다./

“저자의 지혜가 끝나는 곳에서 우리의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이 독서다”

미다스북스 박성천 지음 | 320쪽 | 22,000원

